



2021년 4월 11일(제1030호) 부활 제2주일 곧, 하나님의 지비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빈 무덤에서 희망을 2”

부활절에 저는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빈 무덤에서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가 제자다움을 지닌다면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빈 무덤에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도 빈 무덤이었습니

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빈 무덤 말이죠.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든 문을 걸어 잠가 놓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을 잠갔다는 것은 봉쇄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말입니다. 그랬던 이유는 두려워서였습니다. 자신들의 스승도 죽었으니 자신들도 무사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그랬

겠죠. 지금의 상황이 딱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야 할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그들 한가운데에 어둠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빈 무덤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변두리가 아니라 그들 한가운데에 나타나십니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들이 걸어 잠갔던 문을 지나서 그들 한가운데에, 누구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서는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

다. 또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는 사라지고 또 다시 어둠과 두려움이 자리했죠. 그때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시어 평화를 선물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꼭꼭 잠겨 있는 문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굳게 닫힌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우리들의 잠겨있는 마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방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을 지닌다 해도 예수님께서서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으시고 평화를 물들게 하시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단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찾아오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닫혀있고 어둠과 두려움 속에, 아니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없는 마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서는 찾아가십니다. 빈 무덤과 같은 마음을, 예수님이 없는 문 잠긴 방과 같은 마음을 예수님께서서 가득 채워주시고 찾아가서 위로와 평화를 넣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자리하길 기도합니다.



유병국(요희보스코) 신부
인천해군(인방사) 성당 주임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뒤에 제자들은 어땠나요?

제 1 특 시
회 답 송
제 2 특 시
복음 보호송

- 사도 4,32-35
-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1요한 5,1-6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특 음
영 성 제 송

요한 20,19-31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성 김대건 안드레이 신부의 시한

여섯 번째 시한

그래서 저는 결백하고 또 조선 사람이니까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의 근본이 변할리 없다고 대답하고, 또 혹시 제가 잡힌다 할지라도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은 자기를 변호하기가 어렵지 않으니 제 마음은 편안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제가 조선의 수도 서울 즉 한양으로 간다는 말을 하였기에 그들은 그런 줄로 알고 간교하게도 사람 하나를 보내어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졸들의 손아귀를 피할 확신이 없었고, 만일 잡히는 경우에는 제 몸에 지닌 돈만 보더라도 도적의 혐의를 받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도적은 국법에 의하여 모두 다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탐꾼이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들에게 제가 정말로 서울쪽으로 가더라고 설득시켰다고 생각하고, 그 조그마한 주막을 멀리 피하면서 우회하여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는 감히 길에 나서지를 못하고, 수목이 무성한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해가 떨어져 어둠이 땅을 내리 덮었을 때, 걸음을 재촉하여 밤 2시쯤에 의주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서 바다와 반대쪽 즉 읍의 왼편으로 방향을 정하여, 길도 없는 험악한 곳을 헤맸습니다. 이런 곳에도 사방에 집들이 보이기에 저는 국경 수비대 막사로 여겼습니다.

제가 압록강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벌써 해가 떠올라 사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첫째 강과 둘째 강을 건넌 뒤에 황막한 들길을 걸었습니다. 여기는 낮 동안 조선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길목이었습니다. 저는 걸어가는 도중에 옷을 중국 의복으로 갈아입느라고 나머지 한나절을 다 소비하였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약 1백 리 길을 걷고 나니 해가 떠올랐습니다. 계속 길을 걸어 저녁때가 지나 변문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물건들을 마련하고 5일 만에 백가점에 도착하여 공경하올 매스트르 신부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3월에 프란치스코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편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전에 정성껏 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공경하올 신부님 안녕히 계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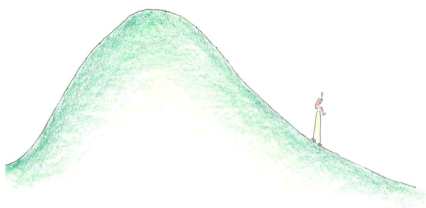
공경하올 사부님께 순명하는 아들 김해 김 안드레아가 올립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또 아이처럼



또,
아이처럼.

그의 목마에,
마냥, 행복해하며.

님,
힘든지도 모르고.

저 언덕을
넘었습니다.

또,
아이처럼.

상화이야기

의심하는 토마스 성인



손가우어는 동판화 화가로 더욱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 그림에서도 동판화가 가지는 또렷한 윤곽선과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는 인물묘사가 보인다. (예수님 손가락의 윤곽선, 예수님과 토마스의 옷자락, 뒤편 의자 위의 방석 주름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와 같이 이 그림도 닫힌 문이 있는 공간에 들어오신(나폴거리는 깃발이 예수님이 방금 도착하셨음을 시사하며, 깃발의 무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대어 보고 있는 토마스를 보여준다.

예수님은 토마스의 손을 잡고 당신의 상처에 그의 손을 갖다 대고 계시며, 고요하고 침착한 예수님의 표정과 달리, 당황하는 토마스의 표정이 대비적이다.

미림 손가우어와 그의 공방, 15세기 후반경 作
 페널 위 유희, 도미니코회 수도사 재단화 중 일부(크기 알수 없음)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부활 제2주일: 공군중앙 김병봉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장회의
- 때·곳: 4월 13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신부(神父)의 책장’ 인내

- 때: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방영 채널: 군중교구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 좋은 서적을 소개하고 나누며 들려드리는 콘텐츠입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